

아버지의



기억

김춘련 저

연변인민출판사

# 아버지의 가을

김춘련 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오경준

책임교정: 김홍화

기술설계: 김설화

---

### 图书在版编目 ( C I P ) 数据

父亲的秋天: 朝鲜文 / 金春莲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5

ISBN 978-7-5449-0544-2

I. 父… II. 金… III. 随笔-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7.1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44556号

---

## 父亲的秋天

---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7.125 字数: 14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544-2 (民文)

版次: 2009年5月第1版

2009年5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14.00元

---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 책을 펴내며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저의 첫 작품집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참 오래동안 망설였습니다.

못난 “자식”이지만 드디어 해별을 보게 되니 한편 보람을 느끼면서도 두려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썼던 글들을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지 않아 오래전에 세운 출간계획을 오늘까지 미루게 되었습니다.

유년기에는 외할아버지인 량세봉장군의 사적에 대한 글을 한편의 책으로 세상에 선보이는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은 아직 이루지 못하고 평시에 마음과 열성으로 짬짬이 쓴 글들을 묶은 나의 분신 같은 존재인 작품집이 먼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글이 세련되지 못하고 미숙한 구석이 많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충고와 따끔한 질책을 통해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저 출간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감사를 드리고싶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모교에서 후학을 가르치시느라, 학술회, 문학공모 등 여러가지 이벤트를 조직하느라 다망하신 가운데 연변대학교의 김호웅스승님이 축하문을 써주셔서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이루 형용할길 없습니다. 먼거리를 마다하시고 늘 시간을 쪼개 돌봐주시는 한국 강릉대학교의 최병우교수님과 한국 춘천의 박종숙선생님께서도 과찬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료동문학》평론분과 주임 김례호선생님의 정성어린 평론에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봐주시고 사랑해주신 많은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늘 힘들 때마다 격려를 아끼지 않는 마음 따뜻한분들이 계셔서 마냥 고마웠습니다.

한권의 책이 빛을 보기까지 경제적으로 후원해주신분들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의 출판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연변인민출판사 여러 편집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의미있는 결실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자로부터

2008 년 10 월 10 일

## 차 례

- 1/련꽃 같은 너자, 종달새 같은 문인/김호응
- 6/마음의 기록/최병우
- 9/빛으로 여는 길/박종숙
- 15/련꽃처럼 살리라
- 18/아버지의 가을
- 22/인연
- 26/우리 민족 삶의 슬기와 지혜
- 32/벽찬 행운
- 44/민족의 얼을 지키는 파수군이 될터
- 64/청산골을 찾아서
- 75/벗꽃
- 79/귀전에 메아리치는 “락동강”노래
- 85/향이가 남긴 자취
- 97/핸드폰에 깃든 사연
- 105/광부, 탄광 그리고 시

- 110/ 력사는 말한다
- 117/ 해바라기씨와 연석침대권
- 121/ 성숙으로 가는 계절
- 126/ 교사라는 그 이름에 부쳐
- 130/ 숲은 이렇게 무성해간다
- 135/ 양세봉장군의 제수씨 김화순할머니
- 140/ 가슴 시린 오해
- 144/ “겨울련가”의 탄생지—춘천에서
- 154/ 푸얼하에 비낀 향수
- 159/ 김학철의《격정시대》연구
- 218/ 성숙으로 가는 길/김례호



# 련꽃 같은 여자, 종달새 같은 문인

김호웅(연변대학교 교수, 박사)

춘련씨를 알게 된지도 어언 22여년 세월이 흘렀다.

1986년, 연변대학 조문학부 86년급 학생들에게 《문학개론》과목을 강의하게 되었는데 50여명 학생들중에 너무 키가 작고 애된 학생이 있어서 이애는 연길구경을 할겸 대학으로 오는 언니나 오빠를 따라온 중학생이 아닌가 했다. 휴식시간에 그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했다.

“너 혹시 중학생이 아니냐?”

“아이구 선생님두, 저 김춘련이라 해요, 봄 춘자에 련꽃 련자, 심양에서 왔어요.”

춘련씨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눈을 고옴게 할졌다. 초가을 빨갭게 익은 파리 같은 고운 쌍겹눈이었다.

강의중에 보면 그 파리 같은 쌍겹눈은 언제나 또릿또릿 나를 쳐다보고있었고 언제나 열심히 강의를 경청하고 또박또박 필기를 했다.

춘련씨가 4 학년에 다닐 때 나는 일본에 가서 방문학자로 1 년 반 남짓이 살았기에 그녀가 졸업하는것은 보지 못했다. 다만 그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심양에 가서 교사로 일하고있다는 이야기는 풍편에 들었을뿐이다.

내 기억의 련못속에 춘련씨가 가물가물 사라지려고 할 때 문득 그녀가 또 연변대학에 나타났다. 15년 세월이 흘렀지만 가을파리 같은 쌍겹눈은 변함이 없었다. 살짝 파마머리를 했고 조금은 살이 올랐는데 한결 당차보였다.

“선생님, 저 석사학위과정을 밟으려고 왔어요. 김학철선생의 문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지도교수는 선생님께서 꼭 맡아주셔야 하겠어요.”

모든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라 좀 당혹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덩당한김에 석사과정에 들어오고 한해가 다 지나도록 연구테마 하나 내놓지 못하는 어리벉벉한 다른 학생들에 비하면 얼마나 야무진가.

춘련씨는 학기마다 꼬박꼬박 연길에 와서 강의를 들었고 번마다 귀한 양주 한병씩 들고 왔다.



왜 이런 비싼 술을 사오느냐고 나무람을 하면 춘련씨는 호호 웃으며 그냥 넘겼다.

“산것이 아니예요. 저도 졸업한 제자들한테서 양주 한병쯤 선물을 받기도 한답니다. 현대 저는 술 한잔 입에 대지 못하고 애기 아빠 역시 양주맛을 몰라요. 주선(酒仙)이신 선생님께 드려야 이 귀한 술맛을 알아줄게 아니겠어요.”

귀한 양주를 들고 온데다가 “주선”으로 알려주니 미상불 기분이 좋았다.

춘련씨가 3년간의 노력을 경주해 김학철문학연구로 석사학위를 무난히 받고 심양으로 돌아갔음은 물론이다. 나는 춘련씨가 석사학위까지 받았으니 조용히 교사로 살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춘련씨는 착실한 가정주부로, 합격된 인민교사로 사는데 만족하지 않는것 같았다. 하늘을 나는 종다리처럼 그의 꿈은 저 하늘너머에 있는것 같았다. 나는 우연히 그녀의 학위론문을 《김학철론·젊은 세대의 시각》이란 책에서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내 눈을 더 휘둥그래지게 만든것은 그녀의 이름 석자를 《한중인문학연구》라는 한국의 학회지에서 보았기때문이다. 《한중인문학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인데 이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었다. 현대 그녀의 논문 “《격정시대》의 서사구조”가 분명 실려있었던것이다. 석사과정 지도교수로서는 참으로 놀랍고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접근해가는 그녀의 삶의 자세가 참으로 마음에 들었다.

그녀의 진면목을 더 깊이 알게 된것은 《료동문학》문학상 후보작을 심사할 때다. 8호까지 나온 《료동문학》을 두루 번져보니 김춘련이라는 이름이 몇번 보인다. 나는 그저 료동지역에도 “김춘련”이라는 동성동명이 있는가보다 하고 무심히 지나쳤다. 그런데 정작 시상식에 가보니 춘련씨도 와있었다.

“수필도 쓰느냐?” 이번에도 역시 궁금증이 도져 한마디 물어보았다.

“부끄러워요. 아직 잘 쓰지 못하거든요.”

춘련씨는 농익은 파리 같은 쌍겹눈을 살짝 빨며 웃었다.

진작 김춘련의 수필인줄 알았다면 눈 한번 감고 금상, 은상은 몰라도 동상으로는 뽑아줄수 있었지만 이젠 행차뒤 나발이었다. 제자의 작품을 묵살한것 같아서 미안함을 표시했다.

“일찌감치 작품이라도 보내주고 암시라도 할거지.”

그러니까 춘련씨는 이번에도 겸양을 보여주었다.

“료동지역 문학상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연변에서 김선생님을 모셔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수필에 입문도 못했는데 어떻게 암치없이 상을 바라겠어요. 황차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심사를 맡아보시는데...”

참으로 맘씨 착하고 정직한 친구였다. 바로 이런 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야무지게 살고있고 거기다가 마음바탕까지 아름다운지라 내 친구인 강



릉대학교의 최병우교수와 같은분들은 심양쪽의 일은 무조건 춘련씨에게 부탁을 하고 또 그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것이리라.

까놓고 말한다면 개혁개방이후 금전만능, 물신 숭배의 풍조가 만연해 우리 조선족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상태가 많이 흐트러졌다. 허영에 들떠 허세를 부리고 얼렁뚱땅 남의 등을 쳐 먹는자들을 심심찮게 볼수 있다. 특히 인간의 가장 숭고한 미덕인 신용과 신뢰가 깨지고있다. 이런 마당에 그야말로 속세에 물젖을줄 모르는 편꽃 같은 마음에 청고한 뜻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살고있는 종달새 같은 제자를 만날수 있어 내심 기쁘다.

춘련씨의 글은 그의 의욕적인 삶과 그의 견문, 그의 사랑과 그의 미움을 진솔하게 그리고있어 그 글속에 우렁이 떠오르는 한 참된 조선족지성인의 모습을 볼수 있다.

이 작품집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춘련씨의 건필을 기원한다.

2008 년 8 월 25 일, 연길에서

# 마 음 의 기 록

최병우(한국 강릉대학교 교수)

료녕성조선족사범대학에 재직중인 김춘련선생이 작품집 《아버지의 가을》을 출간한다고 연락을 해왔다. 김춘련선생과의 인연은 나의 박사과정 지도학생이었던 정연수박사의 소개로 시작되었는데 벌써 연락을 하며 지낸지가 4~5년이 되어온다. 사람이 한번 만나는것도 커다란 인연인데 몇천리 떨어진 타국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내가 심양을 방문하여 두차페, 연길에서 우연히, 장춘에서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시, 김



춘련선생이 서울 와있을 때 몇차례 서로 만나 안  
내도 받고 또 안내를 하기도 했으니 김선생과 나  
의 인연이 보통이 아니긴 아닌가보다.

그간 김춘련선생이 보내준 《료동문학》에서 김  
선생이 쓴 몇편의 수필을 읽으면서 참 감수성이 예  
민한 글쟁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바쁜 교수생활  
과 자식을 키우는 주부의 일이 만만치 않을터인데  
주변의 사소한 일들을 자세히 살펴 숨겨진 큰뜻을  
찾아 글을 만들어나가는 모양새가 세련된 필력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김선생이 그간 쓴  
글들을 모아 작품집을 낸다면서 축사를 부탁해왔  
다. 빨리 원고를 써서 보내야지 하는 마음도 있고  
해서 말 타고 꽃구경하는 식으로 읽으려다가보니  
글이 주는 재미에 빠져 어느 순간에 다 읽고말았  
다. 바로 이것이 김선생의 수필이 가지고있는 힘이  
아닌가싶다.

수필은 흔히 마음의 기록이라고 한다. 아마 이  
말은 시나 소설이 형식적인 틀이 완강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작가 자신의 본모습이 감추어  
지기 쉬운데 반해 산문은 형식의 자유로움으로 인  
하여 작가의 참모습이 그대로 로출되기 쉽다는 뜻  
이리라. 김선생의 산문을 통해서 김선생의 진면목  
을 살필수 있었다. 중국에서 살고있는 조선족으로  
서의 자긍심, 독립운동가 량세봉장군의 외손으로서  
의 자부심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학문에 대  
한 열정이 잘 드러나고있는것이다. 드러내놓고 자  
랑하지는 않지만 글속에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들  
이 겉으로 어찌면 가냘파보이는 김선생의 내면이

갖는 강인함이며 김선생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무엇이든 처음 하는 일이 어려운 법이다. 이제 김춘련선생이 첫 작품집을 출간했으니 더욱더 좋은 수필과 글을 많이 써서 해마다 작품집을 출간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김선생의 수필이 중국 조선족수필의 한 전형이 되고 또 한국에서도 반드시 읽어야 할 작품집이 될것을 기원한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고 이른 시간안에 우리에게 다가와 현실이 될것이라는것을 나는 믿는다.

김춘련선생의 작품집 출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한다.



# 빛으로 여는 길

박종숙

## 1.

목련꽃이 팍콘처럼 툭툭 터지는 계절입니다.

겨우내 소진했던 기력을 되살려 화려한 축제를 벌리는 꽃들이 아름답습니다. 이 찬란한 계절에 김춘련선생님의 첫 작품집 출간소식을 접하니 가슴이 덩달아 부풀어오릅니다. 언제 보아도 해맑은 웃음을 가득 머금은 선생님이 오늘따라 목련꽃으로 피어나 춘천을 찾은것은 아닌지... 선생님의 환한 미소는 그렇게 진실과 성실과 순수를 피워올린 해맑은 꽃이었습니다.

한편의 수필에는 작가의 사고와 인품,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글은 곧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일상에서 간간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편의 수필로 완성하기까지 작가 자신은 피와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글들을 모아 한편의 책으로 묶는다는것은 여간한 보람이 아닙니다.

자식을 낳는 어미의 심정도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첫 작품집을 내는 김춘련선생님의 마음도 그와 같았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그 어려운 작업을 통해 동분서주했을 선생님의 로고에 깊은 찬사를 보내면서 첫 수필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책이 세상에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정서적으로 마음을 순화시킬수 있는 향서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큰 기대를 걸듯이 그렇게 살아왔으니 선생님은 큰일을 했다고 자부해도 부끄럽지 않을것입니다.

## 2.

김춘련선생님과 나는 수필을 통해서 끈끈한 인연을 맺어오고있습니다.

한중문학인교류차 오래전에 심양을 방문했을 때 아마도 선생님과 나는 첫 만남을 가졌을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때의 기억은 간 곳이 없고 몇년 뒤 김춘련선생님이 춘천을 방문했을 때 춘천의 문인들과 함께 남이섬을 다녀오면서 함께 했